

동방학  
제37집

ISSN : 1598-1452(Print)

---

## 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 정신과 생태 글쓰기

박수밀

**To cite this article :** 박수밀 (2017) 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 정신과 생태 글쓰기, 동방학, 37, 229-255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 정신과 생태 글쓰기\*

박 수 밀  
(한양대 연구교수)

- I. 문제 제기
- II. 이규보의 사상과 생태 정신
- III. 이규보 작품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의 양상
- IV. 이규보 생태 글쓰기의 의의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440)

## &lt;논문 요약&gt;

본 논문은 이규보(李奎報)의 문학에서 생태 정신을 찾아내고 그의 생태적 사고가 작품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핀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규보의 문학 기반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태 글쓰기의 개념을 보완해가고자 했다. 먼저는 이규보의 문학 사상과 생태 정신이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이규보의 생태적 사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작품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 양상을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이에 대한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슬견설」에서 보여준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의 글쓰기는 관념론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태 글쓰기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찰의 글쓰기 양상을 살폈다. 그의 작품에는 쥐와 고양이에 관한 경험을 담은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다. 쥐에 대한 일련의 글쓰기와 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는,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는 쥐조차 놓아주는 작가의 생태적 성찰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는, 매미와 거미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담은 「방선부(放蟬賦)」를 살펴보았다. 「방선부」는 호생지심(好生之心)에 바탕을 두고 우의(寓意)의 방법으로 쓴, 생태적 사고를 드러내는 작품이었다.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는 오랜 시간의 성찰과 반성을 거치면서 생태적 사유를 심화해간 것이었다. 그는 자연 사물을 도덕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사물의 생태(生態) 자체를 존중하면서 대상의 연약함을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생태 글쓰기 이론을 발전적으로 탐구해가고자 한다.

주제어: 이규보, 생태 글쓰기, 생태 사상, 슬견설, 방선부, 도가사상

## I. 문제제기

본 논문은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문학에서 생태 정신을 찾아내고 그의 생태적 사고가 작품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규보의 문학 기반을 이해하고 나아가 생태 글쓰기의 개념을 정립해가려는 것이다.

이규보는 전근대 작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가이다. 순문예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조의 연암 박지원 등과 더불어 최고의 위상을 갖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규보는 용사(用事) 전통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신의(新意)를 주장했으며, 내용과 형식 제 측면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글을 썼다. 이규보의 생태 사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의 문학에서 생태적 정신을 찾아내려는 논의들이 있었다. 박희병 교수가 이규보의 생태 정신을 탐구한 이래 이규보의 문학에서 생태적 특질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는 이규보의 생태 정신에 대해 꾸준히 주목해 왔다. 이규보의 문학에서 생태정신과 생태글쓰기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생태 글쓰기의 개념을 보완해 가고 이규보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규보의 사물에 대한 태도가 그의 세계관과 어떤 의미망을 이루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연구자가 파헤치는 생태 글쓰기의 개념과 실재를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 가고, 이론을 완성해 가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II. 이규보의 사상과 생태 정신

일찍이 박희병 교수는 이규보 문학에 풍부한 생태적 사유가 내장(內臟)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규보의 생태 정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이규보는 장자의 제물사상을 잘 체득했다고 하면서 이규보가 물(物)에 대해 보여주는 연민이나 애정은 물(物)과 이웃한다는 의미의 여물(與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규보의 사상을 만물일류(萬物一類)사상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sup>1)</sup> 이후의 연구자들은 박 교수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규보의 문학에서 생태적 특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리하여 이규보의 문학이 생태적 성찰로 충만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과가 쌓여 왔다.<sup>2)</sup>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 반영해가면서 이규보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적 사유와 생태 정신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규보의 사상은 유학뿐만 아니라 도가 및 불교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전통 유학의 자장 안에서는 순전한 생태적 사유를 찾아내기 힘든 면이 있다. 물론 유학도 자연과 사물을 깊이 존중하고 있던 하나, 생태적 관점에서 보자면 유학은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규보는 유학의 틀에 갇히지 않고 유교와 불교, 장자, 도가 사상을 적극 받아들인다. 「明日朴還古有詩走筆和之」과 「南軒答客」에는 유불일원(儒佛一源), 도불일원(道佛一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불교의 공생(共生)과 생명 존중, 만물의 상호의존성 강조, 도교의 제물론(齊物論) 등은 생태 사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이규보의 문학에는 이와 같은 불교와 도교의 사상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박희병 교수는 이규보 문학론의 사상적 근거가 도가사상에 있다고

1)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들베개, 1999, pp. 39-134.

2) 권혁진, 「한시를 통한 생태교육 연구-이규보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권혜정, 『생태의식 고양을 위한 고전문학 교육방안 연구-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유이경, 「생태문학론 모색을 위한 이규보 문학작품 읽기」, 『온지논총』 13, 온지학회, 2005. 정연정, 「이규보와 최승호의 시세계 비교연구-불교생태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동방학』 18,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0.

하면서 이규보는 도가 사상의 본질을 양생술이나 은둔사상이 아닌 인간과 물(物)에 대한 존재론적 관심에 두었으며 도가사상을 개인의 측면에서만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자연관에서도 이규보의 자연에 대한 시각은 기존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규보는 자연의 규범성이나 도덕성을 발견하려하기 보다는 자연에 내재한 영원성과 생명의 아름다움 포착하는데 집중한다. 그는 자연과 만물을 존재하게 하며 통제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스스로 저절로 생성되어 그만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여겼다.<sup>4)</sup> 그에게 자연은 미의 본원인 동시에 지향처로 기능한다. 천뢰(天籟), 천락(天樂) 등 장자 개념을 활용하여 자연의 소리 없는 소리를 최고의 미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sup>5)</sup> 자연 사물의 생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의 사고에서 생태학자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문학 사상의 측면에서 이규보는 문학은 풍아, 즉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시(論詩)」에서 그는 시(문학)가 화려함만 잡고 실상을 버리면 시의 본지를 잃게 된다고 하면서 풍아(風雅)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풍아는 『시경(詩經)』에 나타난 정신으로서 현실에 대한 교화와 풍자와 관련된 용어이다. 그는 문학이 현실과 유리되거나 자기만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작가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사물을 노래할 때, 시인 자신의 실존적 환경을 투영하고 고독을 위로하는데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현실을 교정하는 데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는 글의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이상학적 철학이나 사변적 논리에 주목하는 대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

3) 박희병, 위의 책, pp.39-64.

4) 권혜정, 『생태의식 고양을 위한 고전문학 교육방안 연구-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36.

5) 정우봉, 「이규보의 미학사상」, 『민족문화연구』 제4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p.15.

심을 글로 표출해야 한다고 여긴다.<sup>6)</sup> 자연과 사물에 대한 관찰이 타인의 삶과 존재를 인정하며 소외된 백성들에 대한 이해와 현실 비판으로 나아가간다. 곧 이규보의 사상은 유·불·도를 폭넓게 수용하여 특정 사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연 자체의 미적 아름다움에 주목한다.

이와 같은 양상을 고려하면서 이규보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이규보는 모든 만물이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북산잡제(北山雜題)』에서 이규보는 “나는 기심(機心)을 잊은 사람이라 / 만물을 일류(一類)로 보네. [我是忘機人 萬物視一類]”라고 하여 모든 사물이 동일하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박희병 교수는 이를 만물일류(萬物一類) 사상이라고 일컬으며 이규보의 만물일류는 장자의 제물사상에 측은지심과 자비를 결합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규보는 생명을 지닌 존재는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인간의 시선으로 우열을 매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소재들까지 문학의 중심 소재로 삼는다. 이, 벼룩, 파리, 누에, 거미, 매미, 달팽이, 개구리, 쥐, 개, 고양이, 소 등 뿐만 아니라 다리 부러진 췌, 자, 술병, 술동이 등 무생물도 주요 소재가 된다. 심지어 꿀벌은 너 여(汝)로, 매미 누에는 너 이(爾)로 부르는 사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하며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특히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손쉽게 죽여 버리는 존재에 대해서 더욱 깊은 애정을 품고 깊이 존중한다. 이규보의 만물일류 사상은, 인간은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 아래 평등을 지향한다는 생태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이규보는 연약한 것, 흠이 있는 존재를 감싸 안으며 자신과 동질감을 형성한다.** 명(銘)이나 설(說) 등에서 이러한 양상이 잘 나타난다.

6) 구슬아, 『이규보의 글쓰기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26-28.

예컨대 「소연명(小硯銘)」에서는 “벼루야 벼루야 네가 작은 너의 수치가 아니다.”라고 하여 작아서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벼루를 감싸 안으면서 “벼루야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 생사를 함께 하자구나.”라는 동지애를 드러내고 있다.<sup>7)</sup> 자신의 집에 날아온 한 쌍의 제비에 대해선 “너는 비록 하찮은 미물이지만 / 언제나 옛 집을 못 잊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친구로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한다.<sup>8)</sup> 약한 존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비단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규보는 수많은 시를 통해 일반 백성들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이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였다.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 역시 생명을 존중하고 존재의 평등성을 지향하는 그의 생태적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셋째, 이규보는 쓸모없는 것의 의미 있음을 지향했다. 장자의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규보는 일상적인 것, 연약한 존재를 넘어 쓸모없는 것, 사람들이 해롭다고 여기는 존재조차 긍정의 눈길을 보낸다. 예컨대 「속절족궤명(續折足几銘)」에서는 다리가 부러진 책상에 대해 “나의 고달픈 것을 붙들어 준 것은 너였으며 네 절름발이 된 것을 고쳐준 것은 나다. 똑같이 병들어 서로 구해 주었으니 그 누가 공(功)의 주인이라?”라고 하여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눈다.<sup>9)</sup> 이른바 해충이라고 불리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다. 예컨대 파리의 경우, 왕왕거리며 시끄럽게 구는 파리가 미워 미물을 번식시킨 하늘을 원망하지만, 술잔에 떨어진 파리가 불쌍해서 건져준다.<sup>10)</sup> 쥐와 같이 사람들의 음식을 몰래 훔쳐 먹는 쥐에 대해

7)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제 19집, 「小硯銘」: “硯乎硯乎? 爾麼非爾之恥. 爾雖一寸窪, 寫我無盡意. 吾雖六尺長, 事業借汝遂. 硯乎吾與汝同歸, 生由是死由是.”

8) 이규보, 『동국이상국후집』 제9권, 「구연래(舊燕來)」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9)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제19집, 「속절족궤명(續折足几銘)」: “扶翁之憊者亦乎, 醫爾之跛者翁乎. 同病相救, 孰尸其功乎?”

10) 「睡次疾蠅」, 「又病中疾蠅」, 「拯墮酒蠅」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서도 궁극적으로는 동질감을 느끼며 관대한 시선으로 대한다. 그가 쓸 모없어진 존재, 해충에 대해서도 그 존재 의미를 인정한 것은 대상의 마음으로 들어가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시선을 실천해왔기 때문이었다.

넷째, 이규보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이들의 생태( 삶)를 존중하고 연민을 품는다. 「막태우행(莫筭牛行)」에서는 “소를 매질하지 말라 그 가련한 소를 / 소가 비록 네 소지만 매질해선 안 되리.〔莫筭牛牛可憐，牛雖爾牛不必筭〕”라고 하면서 소가 인간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실어주고 넓은 밭을 갈았건만 소에 올라타며 함부로 매질하는 인간을 꾸짖고 있다. 자신이 타던 말이 늙고 수척해지자 가슴 아파하며, “너와 주인이 다 함께 늙는구나 / 앙상한 뼈 바라보니 문득 가슴 아파진다.〔汝與主人俱老矣，相看瘦骨忽傷情.〕”라고 하며 말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sup>11)</sup> 소가 잘 나아가기 위해 매질하고 말이 야위는 것은 관습적인 일임에도, 작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말과 소의 입장에서 이들의 삶을 동정하고 가슴 아파한다. 누에를 읊은 시에서는 실을 토해 내는 재주를 지녔음에도 고치를 짓고 나면 삶아지는 누에의 인생을 애달파하며 “약은 것 같아도 어리석으니 나 홀로 너를 가엾어 한다.”라고 하여 명주실을 만들고 나서 삶아지는 누에의 운명을 안타까워하고 있다.<sup>12)</sup> 나 홀로 가엾어 한다는 말에서 남다른 생태 의식을 갖고 있는 자의식을 발견한다.

곧 이규보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는 생각 아래 연약하고 흠 있는 존재들의 편에서 헤아리는 생태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었다. 소, 말, 개와 같은 동물들에 대해, 인간이 자기 것으로 갖고 있다는 소유의 관점이 아닌 함께 공존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호혜의 관점에서 사

11) 이규보, 『동국이상국후집』 제2권, 「次韻和白樂天病中十五首」 중 「賣駱」에 관련 내용이 나타난다.

12)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제3권, 「群蟲詠」, 「蠶」: “吐絲工騁巧，作繭反逢煎。似黠還似癡，吾於汝獨憐。”

물(동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 Ⅲ. 이규보 작품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의 양상

이규보의 생태 정신을 살펴본 결과 이규보의 문학 작품에서 생태 글쓰기의 양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그가 의식적으로 생태 글쓰기를 수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생태적 사유가 글쓰기에 침윤된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 이규보의 작품에서 생태 글쓰기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고전에서 생태 글쓰기가 특정한 영역에 국한된 양상이 아니라 규범과 질서에 갇히지 않고 이질적 세계를 아우르며 타자(他者)를 존중하려 했던 작가들에게 나타난 글쓰기 태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밝혀 왔듯이 생태 글쓰기는 단지 내용적인 면에서 생태 사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법으로서의 글쓰기 차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태문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태 글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생태 글쓰기를 수행하기까지는 사물을 관찰하고 사물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해내기까지의 작가의 심리적 과정이 있다. 곧 생태 글쓰기는 작가의 생태적 사고와 아울러 주제를 작품에 담아내기까지의 글쓰기 과정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그 작품에 어떤 생태 사상이 드러났느냐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생태 사상이 드러난 작품의 형식과 글쓰기 과정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즉 생태 글쓰기가 실현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탐구하여, 작가가 글을 쓰기까지의 사물에 대한 태도와 글을 쓰는 심리적 과정을 추적하여 그가 사물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글에 담아내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했다. 물론 작가가 스스로가 ‘생태 글쓰기’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생태적 사고를 보여주는 글을 씀으로써 필자가 개념화한 생태 글쓰기의 특성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생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곧 생태 글쓰기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이자 ‘태도’이다.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는 단 한 번의 과정이 아닌,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양상은 여타의 생태 글쓰기 작가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특이한 사항이다. 게다가 산문과 한시라는 양식을 넘어들며 진행된다. 곧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는 한 작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의식의 변화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는 한 작품이 아닌 하나의 제재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총괄하는 쓰기 과정이다. 따라서 그의 의식의 변화 추이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것이다. 이규보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보았다.

## 1.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글쓰기

이규보의 「슬견설(蝨犬說)」은 생태적 사고를 드러낸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손님과 나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와 이의 죽음을 둘러싼 손님과 나의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교과과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듯이, **모든 생명체는 동일하게 존귀하다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규보가 처음부터 이[蝨]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낸 것은 아니다. 이[蝨]는 사람의 몸에 붙어 사람의 피를 빠는 흡혈성 벌레이다. 하도 작아 사람의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는 미미한 존재 혹은 사람을 괴롭히는 귀찮은 존재로 다루어져 왔다. 이규보의 이에 대한 인식도 처음에는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虱]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 간악하기 너와 같은 것이 없다. / 반드시 켜맨 틈으로 깊이 들어가서 / 눈에 띄이지 않을 곳에 숨고, / 흔히 잠방이 밑에 들

어가서 / 손이 닿지 못할 곳에 숨는다. / 제 땀은 잘된 피라 하여 / 사람을 물어  
그칠 줄 모른다. / 사람은 가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 반드시 그대로 두지 않는  
다. / 더듬어 찾아내어 / 불에다 던진다. / 불이 받아주지 않으면 / 굶주린 개미  
에게 던져 준다. / 개미도 받아주지 않으면 / 사람의 손톱이 또한 죽인다. / 이  
야, 이야 / 너의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sup>13)</sup>

이를 간악하다고 하면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물어뜯  
는다고 야단친다. “너의 죽음을 재촉하지 말라.(毋促乃死)”는 것이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를 부  
정적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시선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는 잡아  
죽여야 하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슬견설」에 이르면 이는 개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존재가 된다.

한 손님이 내게 말했다. “며칠 전 저녁에 어떤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  
는 개를 때려죽이는 장면을 보고 개가 불쌍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며칠 전 한 사  
람이 불이 활활 타는 화로를 끼고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  
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아 죽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님이 실망하  
며 말했다. “이는 미물(微物)입니다.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한 까  
닭에 말한 것인데, 당신이 이같이 대꾸하니 나를 업신여긴 것 아닙니까?” 내가  
말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  
미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두 한가지이니, 어찌 큰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개와 이의 죽음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를 들어 적절한  
대조를 삼은 것이지, 어찌 당신을 업신여겨서 한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못 믿겠  
거든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

13)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19권, 「슬잠(虱箴)」: “蟲從何生, 黠莫如爾. 入必深縫, 目所未到. 多匿禪底, 手所未至. 自謂得計, 嚙人不止. 人不堪毒, 必莫忍置. 捫之搜之, 投畀火熾. 熾火不受, 投畀饑蟻. 饑蟻不受, 爪甲亦利. 蝨兮蝨兮, 毋促乃死.” 이하 이규보 작품의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동국이상국집』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필자가 다듬었다.

프지 않습니까? 한 몸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마디에 골고루 피와 살이 있으므로 그 아픔이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것으로서 어찌 저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것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 마음을 잠잠히 하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과 같은 것으로 보십시오. 그런 뒤에 나는 당신과 더불어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sup>14)</sup>

손님은 개는 큰 짐승이고 이는 미물이라 생각하기에 이가 불쌍해서 잡지 않겠다는 나의 말을 놀리는 말로 생각하고 불쾌하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큰 개든 하찮은 이든 죽기를 싫어하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말한다. 곧 손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나는 사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인간의 입장에 서면 이는 인간을 물어뜯는 해충이고 개는 인간을 지켜주는 유익한 반려자이다. 하지만 각자 사물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주어진 조건에서 살아갈 뿐이다.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하다는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점은 이미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장자의 제물론에 바탕을 둔 만물일류 사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목숨과 이의 목숨도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유학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급진적인 사유를 담은 것이다.

그렇다면 글쓰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다. 이를 꾸짖는 상황은 시의

14) 이규보, 『동국이상국집』21권, 「슬견설(蝨犬說)」: “客有謂子曰, 昨晚見一不逞男子以大棒子椎遊犬而殺者, 勢甚可哀, 不能無痛心, 自是誓不食犬豕之肉矣. 子應之曰, 昨見有人擁熾爐捫蝨而烘者, 子不能無痛心, 自誓不復捫蝨矣. 客憮然曰, 蝨微物也. 吾見彪然大物之死, 有可哀者故言之, 子以此爲對, 豈欺我耶? 子曰, 凡有血氣者, 自黔首至于牛馬豬羊昆蟲蠅蟻, 其貪生惡死之心, 未始不同. 豈大者獨惡死, 而小則不爾耶? 然則犬與蝨之死一也. 故舉以爲的對, 豈故相欺耶? 子不信之, 盍齧爾之十指乎. 獨拇指痛, 而餘則否乎? 在一體之中, 無大小支節, 均有血肉, 故其痛則同. 況各受氣息者, 安有彼之惡死而此之樂乎? 子退焉, 冥心靜慮, 視蝸角如牛角, 齊斥鷃爲大鵬. 然後吾方與之語道矣.”

형식을 빌렸지만 이의 죽음을 둘러싼 철학적 성찰을 이야기할 때는 산문의 형식을 취했다. 이가 사람을 괴롭히는 흡혈 벌레이므로 죽어도 마땅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일상의 형식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개든 이든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등하다는 생각은 커다란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작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설득의 글쓰기가 필요해진다. 그리하여 작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변증법적인 대화 형식으로 구성했다. 「슬견설」에 보이는 문답식의 대화 형식은 조선 후기 산문에서는 흔한 기법이다. 그러나 서로 묻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을 통해 작가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방식은 이전 시기 작품에서는 드물다. 작가는 이의 죽음도 큰 존재의 죽음과 동등한 무게를 갖는다는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논쟁적으로 풀어나가는 문답식 글쓰기 방식을 취했다. 그리하여 상대방은 논리적인 반박 앞에서 자연스레 설득당하게 된다.

제물론적(齊物論的)인 사유를 드러낸 글쓰기는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을 거쳐 노년에 이르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글쓰기를 보여준다.

宰相長捫蝨 재상이 늘상 이를 잡는 건,  
非予更有誰 나 말고 또 누가 있으리오.  
豈無爐火熾 어찌 타오르는 화롯불이 없겠나만,  
投地是吾慈 땅에 던지나니 나의 자비이다.

汝亦無所寄 너 또한 붙어 살 곳이 없어서,  
以我爲之家 나를 집으로 삼은 것이구나.  
無我則無是 나 없으면 너도 없으리니,  
益發有身嗟 더욱 몸 지닌 탄식 하누나. - 「문술(捫蝨)」

이를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에 던지지 않고 땅에 던져 놓아주고 있다. 이의 죽음도 다른 큰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존엄성을 갖는다는 자각이, 여기에 이르면 직접 실천하는 행위로 나아간다. 두 번째 시에는 이의 생태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이르고 있다. 이의 입장에선 인간의 옷이

자신이 살아가는 집이다. 그러니깐 이는 자신이 살 곳을 찾아가 인간의 옷에 숨어 살게 된 것이다. 앞서 옷 속에 숨어 사는 이의 모습을 교활한 행위로 인식했다면,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깨달음 이후엔 이의 숨어사는 행위가 연민으로 다가온다. 1구의 ‘또한[亦]’이라는 어휘에는 인간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정한 거처가 필요하듯이 이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아가갈 거처로써 옷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담겨 있다. 그러니 이제 동병상련의 처지인 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를 놓아주게 되고, 이가 숨어 살도록 만든 자신의 몸을 탄식하는 것이다. 곧 「슬견설」에서 보여준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의 글쓰기는 관념론에 머물지 않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태 글쓰기 과정을 보여준다.

## 2. 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찰의 글쓰기

이규보의 작품에는 쥐와 고양이에 관한 경험을 담은 일련의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다. 고전 전통에서 쥐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상징을 지녀왔다. 하나는 12간지의 첫 자리에 놓인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긍정의 이미지가 있다. 특히 민담에서 쥐는 어려운 상황에서 꾀를 잘 내는 지혜자, 앞일을 미리 알려주는 예지자의 이미지를 갖는다. 복을 가져오는 복의 상징이자 새끼를 많이 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안의 곡식을 몰래 훔쳐 먹고 더러운 시궁창에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다. 특히 『시경(詩經)』, 「석서(碩鼠)」편에 등장하는 ‘큰 쥐’는 집안의 곡식을 축내는 모습으로 나타나, 가렴주구를 행하는 위정자나 하급관리를 비유해 왔다. 이후로 많은 문인들은 쥐를 노래할 때, 주로 집의 구멍을 뚫고 곡식을 훔쳐 먹는 속성에 빗대 백성의 곡식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로 비유해 왔다. 쥐를 저주하는 축문 형식의 「주서문(呪鼠文)」도 쥐에 대해 저주하고 질타한다.

우리 집에는 평소에 고양이를 기르지 않으므로 쥐 떼가 마음대로 날뛴다. 이

에 그것이 미워 저주하노라. …… 쥐떼들에게 묻노니, 너희가 맡은 일이 무엇이고 누가 너희를 집에 있게 했으며, 어디서 태어나 불어나느냐?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은 오직 너희만이 알 것이다. 대개 도둑은 밖에서 오는 것인데 너희는 어찌 안에 살면서 도리어 주인의 집에 해를 끼치느냐. 구멍을 많이 뚫어 여기저기 들락날락하며, 어둠을 틈타 마구 쏘다녀서 밤새 시끄럽게 하며, 사람이 잠이 들면 더욱 마음대로 날뛰고 대낮에도 떼떼이 다니는가 하면 방에서 부엌으로 가고 마루에서 사랑채로 간다. …… 너희를 누를 것은 고양이지만 내가 기르지 않는 것은 성품이 본래 자비로워 차마 악독할 수 없어서이다. 소홀히 여겨 내 덕을 알지 못하고 날뛰다가 내 심기를 건드린다면 너희를 깨우쳐 응징하고 후회하게 할 터이니, 빨리 달아나 내 집에서 피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고양이를 풀어서 하루 만에 네 족속을 죽이리라. 고양이 입에 너희 기름을 칠하게 하고, 고양이 뱃속에 너희 살을 장사지내게 하리라. 비록 다시 살아나고 싶어도 목숨을 대속할 수 없을 것이니 속히 가거라. 속히 가. 국법처럼 신속히 따르거라!<sup>15)</sup>

작가가 쥐를 저주하는 것은 쥐가 집안 살림들을 몰래 뚫어놓고 못쓰게 하는데 있다. 배를 채우는데 멈추지 않고 옷과 옷감을 뚫어 입을 수 없게 하고 실까지 뜯어 명주를 짜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고양이를 풀어 놓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다. 작가는 짐짓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성품이 자비로워 차마 악독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으니 고양이를 풀어 쥐를 섬멸하기 전에 신속히 달아나라는 것이다. 주인의 어둠과 쥐의 난폭함을 대비하며 쥐의 죄상을 고발한다. 「주서문」에서 작가는 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시선에 따라 쥐를 꾸짖고 있다.

15) 이규보, 『동국이상국집』20권, 「呪鼠文并序」: “予家素不畜貓, 故群鼠橫恣. 於是疾而呪之. … 問之衆鼠, 爾有何司, 孰以汝爲畜, 從何產而滋? 穿窬盜竊, 獨爾攸知. 凡曰寇盜, 自外來思, 汝何處于內, 反害主家爲? 多作戶竇, 側入旁出, 伺暗狂蹂, 終夜窶窶, 寢益橫恣, 公行白日, 自房歸廚, 自堂徂室. … 制爾者貓, 我豈不畜, 性本于慈, 不忍加毒. 略不德我, 奔突抵觸, 喻爾懲且悔, 疾走避我屋. 不然放獐貓, 一日屠爾族. 貓吻塗爾膏, 貓腹葬爾肉. 雖欲復活, 命不可贖. 速去速去. 急急如律令.”

하지만 작가의 바람과 달리 쥐 떼는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면서 구멍을 뚫어놓고 곡식을 훔쳐 먹기 일쑤다. 이에 작가는 검은 고양이를 들여놓는다. 「득흑묘아(得黑貓兒)」를 보면 작가는 푸르스름한 털과 동글동글한 새파란 눈, 호랑이 새끼와 비슷한 무늬를 지닌 검은 고양이를 들여 놓는다. 그러면서 말하길, “쥐 떼가 제멋대로 날뛰면서 / 뽀죽한 이빨을 집을 뚫어”놓았으니, “고양아, 너는 밥만 축내지 말고 / 노력해서 쥐의 무리 섬멸 하라.”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고양이는 쥐를 잡을 생각은 않고 밥만 축내기만 한다. 쥐들은 변함없이 벽과 담을 뚫고 들락날락하면서 음식을 훔친다. 이에 작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

畜猫非苟屠爾曹	고양이 기름은 너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欲爾見猫深自竄	너희가 고양이 보고 스스로 숨기를 바라서다
胡爲不遁藏	너희들은 어찌해 숨지 않고
穴壁穿墉來往慣	벽과 담을 뚫고 들락날락 하느냐?
出遊已云頑	나와서 노는 것도 완악한데
矧復狂且亂	하물며 광란을 부린단 말이나
鬪喧妨我眠	시끄럽게 싸워 잠을 방해하고
竊巧奪人饌	약삭빠르게 사람의 음식을 훔치누나
猫在汝敢爾	고양이가 있는데도 너희들이 날뛰는 건
實自猫才緩	실은 고양이의 재주가 없어서이다
猫職雖不供	고양이가 제 구실 다 못했다 하여도
汝罪亦盈貫	너희들의 죄는 역시 많으니라
猫可鞭而逐	고양이는 매질로 쫓아낼 수 있지만
汝難擒以絆	너희들은 잡아 묶기 어려우니
鼠乎鼠乎若不悛	쥐야 쥐야 그 버릇 고치지 않는다면
更索猛猫懲爾慢	다시 사나운 고양이로 너희 오만함 혼내겠다. - 「서광(鼠狂)」

작가가 고양이를 기른 것은 궁극적으로는 쥐를 잡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고양이를 무서워하며 쥐 스스로 다른데서 숨어 살기를 바란 것이다. 작가는 기본적으로 쥐를 살려주고픈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를 두었음에도 쥐는 여전히 날뛴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재주가 없던 탓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다시 쥐에게 경고한다. “쥐야, 그 버릇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 사나운 고양이로 너희 오만함 혼내겠다.” 이번에는 더 사나운 고양이를 들여와 쥐들을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쥐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태적 깨달음에 이른다. 그리하여 작가는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人盜天生物 사람은 하늘이 낸 물건을 훔치고,  
 爾盜人所盜 너는 사람이 훔친 걸 훔친다.  
 均爲口腹謀 똑같이 먹고 살려 하는 일이니,  
 何獨於汝討 어찌 너만 징벌하겠느냐. - 「방서(放鼠)」

쥐를 벌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쥐가 사람이 만든 곡식을 몰래 훔친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쥐의 행위는 앞서 훔치다[盜]는 말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자연에서 얻는 것들도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낸 것을 훔치는[盜] 행위이다. 쥐가 훔쳐 먹고 사는 물건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자연의 것을 훔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가는 인간이 자연의 산물을 취하는 행위를 얻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훔친다[盜]’고 표현한다. 생태계의 차원에서 보면 사람이든 쥐든 먹고 살기 위해 남의 것을 ‘훔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훔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제 각자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든 쥐든 모두 구복(口腹)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쥐만 나쁘다고 징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쥐를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쥐에 대한 일련의 글쓰기와 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는 작가의 생태적 성찰이 담겨 있다. 고전 전통에서 쥐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글은 찾기가 어렵다. 비록 쥐가 민간에서는 지혜와 다산, 근면, 생명력 등을 상징해 오긴 했어도 한문학 전통에서는 경전인 『시경(詩經)』

에 나타난 쥐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쥐는 주로 나라를 좀먹는 탐관오리나 못된 도둑으로 비유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동등하다는 이규보의 생태적 세계관은 인간에게 큰 해를 끼치는 쥐조차 놓아주는 생태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이른다. 쥐에 대한 일련의 글쓰기 행위를 통해 이규보의 생태적 글쓰기는 단기간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성찰과 반성을 거치면서 생태적 사유를 심화해간 것임을 알게 된다.

### 3. 매미와 거미에 대한 우의(寓意)와 가탁의 글쓰기

이번에는 매미와 거미의 관계를 다룬 「방선부(放蟬賦)」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 교활한 거미는 그 종류가 아주 많다. 누가 너에게 기교(機巧)를 베풀어 그물 만들 실로 둥근 배를 채웠는가. 어떤 매미가 거미줄에 걸려 처량한 소리를 지르기에 내가 차마 듣다 못하여 놓아 주어 날아가도록 했다. 옆에서 있던 어떤 자가 나를 나무랐다. “오직 이 두 미물(微物)은 다 같이 하찮은 벌레들인데 거미가 자네에게 무슨 손해가 있으며 매미는 자네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오직 매미만 살리고 거미는 그만 굶겨 죽이려 하느냐? 이 매미는 자네를 고맙게 여길지라도 저 거미는 반드시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다. 매미를 놓아 보낸 것에 대해 누가 자네를 지혜롭다 하겠는가?” 나는 처음에는 이마를 찡그리고 대답조차 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한마디 말로써 그의 의아심을 풀어주었다. “거미는 성질이 욕심을 내고, 매미는 자질이 깨끗하다. 배부르기만 구하는 거미의 욕심은 채우기가 어렵지만은 이슬만 마시는 매미의 창자에서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 저 탐욕스런 거미가 이 깨끗한 매미를 위협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거미는 저리도 가는 실을 토해 그물을 만들어 내는지 아무리 이루 같은 밝은 눈으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물며 이 지혜롭지 못한 매미가 어떻게 자세히 엿볼 수 있겠는가?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그 그물에 걸려서 날개를 쳐도 더욱더 얽히기만 한 것이다. 제 이익만 구하려는 쉬파리들은 온갖 냄새를 따라 비린내만 생각하고

나비도 향기를 탐내어 마치 미친 듯이 바람을 따라 오르내림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그물에 걸린다 한들 누구를 원망하라. 본래 그 허물이 너무 탐내고 구하려는 욕심 때문인데, 너는 오직 남과 더불어 아무 다투는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악독한 그물에 걸렸느냐? 네 몸에 얽힌 거미줄을 풀어주고 너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부탁한다. “높은 숲을 찾아 잘 가거라. 아름다운 그늘의 깨끗한 곳을 가려 자주 옮기지 말거라. 이러한 거미들이 엿보고 있으니 한 곳에만 오래 있지 말거라. 사마귀가 뒤에서 노리고 있으니 너의 거취를 조심해라. 그런 다음에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sup>16)</sup>

거미줄에 걸린 매미를 놓아 준 나의 행동을 비판한 어떤 사람에 대해, 내가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매미를 놓아준 것은 거미에게는 해가 될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거미에게서 청렴한 매미를 풀어 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빗대 인간 세대를 비판한다.

그런데 이 글은 「슬견설」과 비교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슬견설」에선 손님은 사물의 크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고 말하고, 나는 사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생명체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은 매미와 거미는 모두 하찮은 미물들로써 어느 한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는 매미는 깨끗하지만 거미는 탐욕스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는 매미와 거미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알아보고, 매미와 거미를 다룬 이규보의

16)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1권, 「放蟬賦」: “彼黠者蛛, 厥類繁滋. 孰賦爾以機巧, 養丸腹於網絲? 有蟬見柱, 其聲最悲, 我不忍聞, 放之使飛. 傍有人兮誰氏子, 仍詰予以致辭, 惟茲二物等蟲之微, 跌於子何損, 蟬於子何裨, 惟蟬之活, 乃蛛之飢. 此雖德君, 彼必冤之. 孰謂子智, 胡放此為? 予初牘額而不答, 俄吐一言以釋疑. 蛛之性貪, 蟬之質清. 規飽之意難盈, 吸露之腸何營? 以貪汚而逼清, 所不忍於吾情. 何吐緒之至纖, 雖離婁猶不容晴. 矧茲蟲之不慧, 豈覘視之能精? 將飛過而忽胃, 翅拍拍以愈嬰. 彼營營之青蠅, 紛逐臭而慕腥, 蝶貪芳以輕狂, 隨風上下而不停. 雖見罹而何尤? 原厥咎本乎有求, 汝獨與物而無競, 胡為遭此拘囚? 解爾之纏縛, 囑汝以網繆. 遡喬林而好去, 擇美蔭之清幽, 移不可屢兮. 有此網蟲之窺窺, 居不可久兮. 蟪蛄在後, 以爾謀慎爾去就. 然後無尤.”

다른 작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매미는 고전 전통에서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매미 선(蟬)자가 신선 선(仙)자와 발음이 같아 신성한 동물로 여겼으며 높은 나무에 올라 공기와 이슬만 먹고 산다고 해서 청렴과 고결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유학에서 매미는 군자가 지녀야 할 오덕(五德)을 갖춘 군자의 상징이었다. 매미의 머리는 관(冠)의 끈이 늘어진 형상이어서 문(文)이 있고, 이슬만 먹고 살므로 청(淸)이 있으며, 곡식을 먹지 않으니 염(廉)이 있다. 집을 짓지 않으므로 검(儉)이 있고, 철에 맞추어 허물을 벗고 절도를 지키므로 신(信)이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거미는 거미줄을 피어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수광, 이봉환, 안정복 등 「蜘蛛」를 읊은 시들을 보면 거미는 해를 끼치는 존재, 탐욕이 많은 존재로 나타난다. 오늘날 거미가 이로운 익충(益蟲)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깐 작가는 유학에서 매미와 거미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상징에 기대어 거미를 탐욕스런 존재로, 매미를 깨끗하고 맑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규보의 글에는 「원중문선(園中聞蟬)」, 「영선(詠蟬)」, 「선(蟬)」 등 매미를 읊은 시가 몇 편 있는데, 매미의 울음소리를 듣기 좋다고 하면서 매미의 울음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라든가 쥐에 대한 작가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규보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조차도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살려주거나 연민의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 유독 수많은 동물 가운데 거미만을 싫어하며 교활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작가의 세계관에 비추어 모순되어 보인다.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작가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거미를 읊은 다른 글을 살펴보기로 한다.

蜘蛛乘秋候 가을 만난 거미들  
緣霑工織網 처마 끝에 그물 치네

蟹足行掛絲 뒷걸음치면서 실을 걸어  
疾若梭來往 빠르기가 복질하는 것 같군

.....

我本疾網蟲 나는 본래 그물 벌레를 미워하여  
呼奴釋且放 종들 불러 걸린 벌레 놓아주라지  
凡有血氣者 모든 혈기 있는 동물치고  
口腹誰不養 누구라고 안 먹고 살라미는  
大則虎與熊 저 큰 범과 곰은  
擇獸行舐掌 짐승도 가려 먹고 발바닥도 빨며  
小則鷄與鶩 저 작은 닭이나 오리들은  
啄蟲於糞壤 썩은 흙에서 벌레를 쪼네  
若此非一類 이런 종류가 하나뿐이라만  
胡獨憎爾狀 어찌 너만을 미워할까  
機巧吾所忌 내가 미워하는 건 너의 기교란다  
汝巧誰與仇 너의 기교 뭐라서 짝하리  
吐絲細於蠶 뱉는 실 잠사보다 더 가는 것을  
不惜腹中續 뱃속에서 모두 꺼내어  
以此引癡蟲 이것으로 모든 벌레 유인하니  
焉得不見誑 벌레들 어찌 속지 않으랴. - 「주망(蛛網)」

글에 의하면 작가는 그물을 쳐서 다른 존재를 잡아먹는 벌레를 미워하여 거미줄에 벌레가 걸리면 하인에게 명해 구해주곤 했다. 모든 동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잡아 죽인다. 그럼에도 작가가 유독 거미를 싫어하는 건 거미의 기교(機巧) 때문이다. “어찌 너만을 미워하겠니?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의 기교이다.”라고 하여, 거미의 기교를 미워한다. 「방선부(放蟬賦)」의 첫머리에서도 거미의 교활함은 기교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기교(機巧)란 교묘한 잔꾀란 뜻이다. 작가는 거미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궁한다. 하지만 거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실을 내어 다른 벌레를 속여 유인하는 행위는 교활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규보의 호생지심(好生之心)과

도 관련된다. 이규보는 닭들이 벌레를 쪼아 먹는 모습이 미워서 닭들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살리기 좋아하는 것이 본래 바람이네.[好生本所期]”라고 하여 평소 호생(好生)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토로한다.<sup>17)</sup> 곧 작가의 호생지심이 거미의 기교를 싫어하게 만든 것이다. 탐욕스런 거미가 깨끗한 매미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차마 묵과할 수가 없어서 매미가 날아가도록 풀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방선부」에서 거미와 매미에 대해 갖는 작가의 태도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대 우의(寓意)한 것인지 사물 자체의 생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는 다른 글에서 “사물에 우의(寓意)하여 깊은 뜻을 의탁하기도 하고 /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네 / 이러한 것은 꽃만이 아니라 / 모든 사물이 다 그러하네.”<sup>18)</sup>라고 하여 사물에 우의하여 깊은 뜻을 담아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방선부」는 거미와 매미의 관계에 빗대어 탐욕스런 인간들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려주려한 것이다.

따라서 「방선부」는 작가의 호생지심에 바탕을 두고 우의(寓意)의 방법으로 쓴, 생태적 사고를 드러내는 작품이라 하겠다. 평소 기심(機心)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매미를 깨끗한 존재로 거미를 탐욕스런 존재로 비유하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요청한 것이다. 곧 거미와 매미에 관한 일련의 쓰기 과정을 통해 「방선부」 역시 생태 글쓰기가 실현된 작품임을 확인한다.

17) 이규보, 『동국이상국집후집』, 제4권, 「家有衆鷄, 匡宅啄蟲, 予惡而斥之, 因有詩」: “朱朱公, [昔朱氏公化雞, 因號朱朱.] 好啄蟲, 予不忍視, 斥勿使邇, 汝莫怨我爲, 好生本所期. 我今退老踈散, 不卜朝天早晏. 豈要聞渠報曙聲, 貪眠尙欲避窓明.”

18)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5, 「四月十一日 與客行園中 得薔薇於叢薄間 久爲凡卉所困 生意甚微 予卽薙草封植 埋以土撐以架 後數日見之 葉旣繁茂 花亦曄盛 於是因物有感 作長短句 以示全履之」: “...萬物詭深意, 靜坐復深思. 若此非獨花, 凡物亦如之...”

#### IV. 이규보 생태 글쓰기의 의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는 일회성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성찰과 반성을 거치면서 생태적 사유를 심화해간 것이었다. 이나 쥐 등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에 대해서도 애정을 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긴 것은 생명의 근원적 소중함에 대한 작가의 투철한 깨달음에 기인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규보는 자연 사물을 인간을 위한 도덕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사물의 생태적 특성 자체에 대해 주목하면서 존재의 연약함과 흠을 따듯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느냐 해를 끼치느냐로 생명체의 긍정 부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사물의 살아가는 몸짓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명의 독자적인 존재 의미를 존중하였다.

지금까지 생태적 성찰을 보여주는 작가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생태 글쓰기를 수행한 작가들은 당시의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지향했다. 유학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지배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두루 포용하여 자유로운 정신으로 나아갔다.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려 했으며 약하고 소외된 존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규보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학에서의 생태 글쓰기와 더불어 이규보의 생태 글쓰기를 분석함으로써 생태 글쓰기의 개념과 범주를 정립해가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 글쓰기는 고전 시대 산문이 나아간 문학적 성취를 말해준다. 생태 글쓰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며, 관습의 시선이 아닌 새로운 자각의 시선, 연민의 시선이 요구되는 글쓰기이다. 따라서 생태 글쓰기는 문학의 본질이 될 수 있으며 고전 글쓰기의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공부해 온 성과들을 보완 수정해가는 가운데 생태 글쓰기의 개념을 더욱 설득

252 東方學 第37輯(2017.8.31)

적으로 제시하고 쓰기 과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생태 글 쓰기 이론을 발전적으로 탐색해가고자 한다.

▷접수일: 2017.7.25 / 심사완료일: 2017.8.25 / 게재확정일: 2017.8.27

### <참고 문헌>

- 이규보, 『국역 동국이상국집』, 민족문화추진회, 1978.
- 이규보/한국문집편찬위원회 편, 『東國李相國集』, 경인문화사, 1993.
- 서거정, 『동문선』,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2.
- 이규보 지음/김상훈, 류희정 옮김, 『조물주에게 묻노라』, 보리출판사, 2004.
- 구슬아, 『이규보의 글쓰기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권혁진, 「한시를 통한 생태교육 연구-이규보의 한시를 중심으로」, 『한자한문 교육』 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 권혜정, 「생태의식 고양을 위한 고전문학 교육방안 연구-이규보 문학에 나타난 생태의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상홍 외, 「(특집)한문학과 생태 사상」, 『한국한문학연구』 33집, 한국한문학 연구회, 2004.
- 김 영, 「노장의 생태사상과 우언」, 『한국한문학연구』 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 박수밀, 「이덕무 산문의 생태적 글쓰기와 그 의미」, 『작문연구』 10집, 한국 작문학회, 2010.
- 박수밀, 「연암 박지원의 생태 글쓰기와 그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 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 박수밀, 「이옥의 문학에 나타난 생태 글쓰기와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2016.
-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 서정화, 『이규보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원주용, 『이규보의 記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유이경, 「생태문화론 모색을 위한 이규보 문학작품 읽기」, 『은지논총』 13, 은지학회, 2005.
- 이도원 엮음,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 정연정, 「이규보와 최승호의 시세계 비교연구-불교생태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동방학』 18,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0.
- 정우봉, 「이규보의 미학사상」, 『민족문화연구』 4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조상우, 「이를 소재로 한 고전산문의 전개양상 고찰」, 『동양고전연구』 34, 동양고전학회, 2009.
- 홍원식, 「동아시아 생태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동양철학연구회, 2007.

## Abstract

### *The Ecological Spirit and Writing in the Works of Kyubo Lee's / Park, Sumil*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cological spirit in a writer of Korea dynasty, Kyubo Lee's literature, and to reveal the way of containing this spirit in his works. To this approach, it explores his literatural background and makes up the concept of ecological writing. At the beginning, it shows the aspects of his literatural thought and ecological spirit. There are three aspects in his ecological spirit revealed in his works, in terms of consciousness change in his ecological thought. Firstly, it reveals the change aspect of his ecological writing. He did not stop his writing in a philosophical and ontological idealism in <Seul-Gyon-Seol>, led his writing up to the practical action. Secondly, it is about the consciousness change about rat and the change aspects of his reflection writing. Among his works, there are exciting works of his own experience about rat and cat. His writing about rat and process of thought change contains his ecological consideration. Thirdly, <Bang-Seon-Boo> is a work of new reflection about cicada and spider. This work shows the ecological thought, in an allegorical way, on the basis of the love to living thing - so called "Ho-Seang-Ji-Sim". The ecological wring of Kyubo Lee's had been deeply developed along with his long insigt meditation and reflection. At the same time, he did not consider nature things as the instrument of morality. He respected the ecology of things as it is, looked into the weakness of things with warm heart and compassion. The concept of ecological writing shall be continuously put in hard work, and make an advanced fruitful study outcome.

Key words: Kyubo Lee, ecological writing, ecological thought, The idea of Do-Ga, <Seul-Gyon-Seol>, <Bang-Seon-Boo>.